프라임경제

코너스톤네트웍스-이스온, 혁신형 5G 기지국 상용화 위한 MOU 체결

"5G 장비의 소형화·경량화 통해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정화"

기사입력 2020.02.13 13:04:50 | 최종수정 2020.02.13 13:04:50 |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코너스톤네트웍스(033110)는 지난 11일 새로운 5G 시장 진입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승·하강식 감시시스템(CCTV) 아트폴'을 개발한 이스온(대표 김응욱)과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너스톤네트웍스는 자회사인 광통신소재기업 휘라포토닉스와 광통신계측기 장비기업인 티디아이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5G 통신사업부문에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혁신형 5G 기지국의 개발사인 이스온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스온의 승·하강식 타워형 기지국인 스마트 엘리베이팅 폴 시스템의 상용화 및 시장공략에 코너스톤네트웍스와 자회사의 핵심역량을 발휘해 국내와 해외진출까지 박차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타워형 기지국은 지상에서 본체를 구성해 타워 상단에 안테나 증폭기를 달아 안전사고 발생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보완한 이스온의 '5G 기지국'은 AUU 장비 설치의 유지보수에 있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인건비 절약이라는 경제성을 가져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풍 코너스톤네트웍스 총괄대표는 "이스온의 스마트 엘리베이팅 폴 시스템은 국내외 통신사들의 과제인 5G 장비의 소형화·경량화를 통한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정화에 대한 혁신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본사는 물론 자회사의 국내외 영업망을 통해 전 세계 5G 시장에 이스온 혁신형 5G 기지국을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욱 이스온 대표는 "당사가 개발한 혁신형 5G기지국 시스템의 빠른 상용화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장 확대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타워형 기지국은 물론 전주형, 옥상형 기지국에 필요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코너스톤네트웍스와 함께 이스온의 혁신형 5G 기지국을 전 세계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이래 기자 (kir2@newsprime.co.kr)
Copyright ⓒ 2005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